

금요 수필

썩베 반바지

어머니의 낭자커리에 꽃힌 은비녀가 오래전 추억 속 그리움이 떠오른다. 중학교 2학년 산골에서 십여 리를 걸어 학교에 다닐 때였다. 학생들은 등복과 하복 두 종류만 입고 다녔다. 하복은 썩베 반바지에 흰 셔츠였다. 갑자기 6월부터 반바지를 입고 등교하게 됐다. 친구들은 음내 몇몇 양복점에서 반바지를 주문해 맞추었다. 나는 수어로도 -1남인 상태라 반바지를 맞춰 입을 형편이 못되었다. 정해진 날이 되어도 내 반바지는 마련되지 못했다.

그 당시 어머니는 한글을 해독하고 시골에서 '심정전', '장화홍련전' 등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다. 인제 감경이 때 산골에 시집와서 고생하면서 삶을 이 어갔다. 가끔 댁신이 살아야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수십 권은 되리라고 했다. 산으로 불러 탁한 오지마을이라 사람이 아파도 병원은 꿈도 못 꾸었다. 아홉 남매를 낳았지만 셋은 어린 때 하늘로 보내고 그 아홉을 가슴 깊이 품으셨다.

살이 힘겨웠지만 육 남매가 꽃과 내비로 보아서 꼭꼭 참고 살아왔다고 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 겨울에 나를 낳았는데 낮과 밤 좌·우의 치열한 싸움에 시달려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나는 음케도 살아냈다. 어머니는 유달리 왜소하고 이쁜 나를 늘 안쓰럽게 생각



유 종 인  
수필가

하였다. 그렇게 커운 아들이 내일부터 입고 갈 반바지가 없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묵묵하던 어머니는 내 긴 교복 바지를 가져와 가위로 속 속속 무릎 위까지 잘라내었다. 바지를 반 동강이로 내며 어머니는 다음날부터 무시지 않았을까. 얼마 후 자갈 부류의 더운 절이 바느질로 바꾸려하니 양복점에서 맞춤 반바지의 똑같았다.

원하던 시절이다 그것을 입고 밖으로 나가 신나게 놀았다. 그때 어머니의 비시시 웃으시며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유월이 되어 그 바지를 입고 등교하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양복점에서 맞춤 바지는 다니지만 어머니의 슬퍼와 정이 담긴 옷이 다시 더 좋았다.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니 흠가분하고 가뿐기분 변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합창반에서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지냈다. 어쩌도

그렇게 시간이 빠르지 여름 두 달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칠월 하순에 접어들어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사무실에서 심하게 독려했다. 울고 싶었다. 우리 때문에 더듬뿍을 얻기 위해 한나 친구들에게 미안해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았다. 2학기 개학을 앞둔 8월 막이 되었을 때였다. 2학기 수업료도 납부해야 해서 걱정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음내에서 형이 집으로 왔다.

"종인아! 누나는 중학교 문턱도 못 밟아보고도 고입경고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너는 이만큼 다녔으면 값이 더했지 않았나?"

"그러나 2학기부터는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라."라고 말한 뒤 씩하니 가버렸다. 그렇지만 나도 수업료를 못 내 학교에 가지 싫었는데 차라리 속이 시원하고 훌가분했다.

적지만 논과 밭도 있어 살만했는

데 여러 동생의 앞길까지도 주관단으로 계산하려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왜 부모님과 형에게 항의도 하지 않고 고장을 부리지 않았는지 후회도 하며 씩씩히 웃어 본다.

정들었던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어 마음속으로 매우 서글웠다. 사연 많은 썩베 반바지도 내 곁에서 떨어져 미안했다. 지금도 가시며 볼 해쳐가며 양복과 과정을 바꾸려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연의 일치인지 꼭 20년이 지난 1984년부터 추억하던 그 학교에서 6년 농안 음악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위안을 삼았다. 까다로운 아홉이 담긴 옛 추억이 오히려 아늑하게 다가왔다.

무뎠아 앉아 반바지를 만져주 시던 어머니의 그때 모습이 아련하 나. 몸에 찬바람 불어 함께 웃고 웃던 썩베 반바지가 오늘따라 더 그리워진다.

\*1950년 정음 출생  
전주시대 음악학사, 전북대 음악석사, 남원하늘중, 전주호정중 교장 역임  
황소근정훈장 수상 '수필과 비평' 등단(2015년)  
수필과 비평, 전북 문인협회 회원  
제2회 우리 문학상 본상 수상(2025년)  
저서: 수필집 '그날의 합창'(2020년), '썩베 반바지(2026년)'

독자제언

흥기 대응훈련, 우리 모두의 방패가 되길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강력범죄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속에서 얼마전 참여했던 흥기 대응 훈련은 훈련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에게 단순한 교육이 아닌 큰 울림을 주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육을 진행한 교관님의 열정과 조교분들의 시범이었다.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탄력적 대응하는 모습에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게 두지 않겠다는 강한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다.

긴박한 대처 상황에서의 거리확보

및 주변 활용법 등 교관님의 헌신적인 지도 덕분에 훈련에 임한 동료들 역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임했으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 곧 시민을 지키는 길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번 훈련은 현장의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현장 경찰관을 지키기 위한 노하우를 아낌 없이 전수해준 교관님과 조교님의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내실있는 실전 훈련이 동료들에게 현장에서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일상을 선물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훈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감

차량 털이범으로부터 내차를 보호하자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차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다. 그리고 차량 털이 범도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우범지역을 설정, 범의예상을 위해 순찰을 하고 있으며 곳곳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부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량 털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해줘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차량 털이범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노리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유리창은 물론이고 문도 꼭

잠그고 주차를 해야 하며, 잠시 차를 정차할 경우에도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차량을 잠가야 한다.

또한 차량을 주차할 경우 인적이 드문 길 가장자리가 아닌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예방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차량 내에 가방이나 의류 또는 현금, 상품권 등 귀중품을 절대 놔두지 말고, 말·부착 네비게이션의 경우에도 말·부착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주차 시에는 탈착하는 게 좋다.

우리 스스로가 범죄예방에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인다면 소중한 내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진제 원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 사설

#### 책 공작소 입주작가 모집

전주시는 3월 29일까지 완산도서관 '자작자책 공작소' 8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글쓰기 특화 도서관인 완산도서관은 이번 모집을 통해 전문작가 11명과 예비작가 10명 등 총 2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문작가의 경우 신춘문에 등 문화 매체를 통한 등단자와 번역가, 기고자 또는 출간 경험이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도서는 집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예비작가는 정식 등단이나 출간 경험은 없지만 꾸준한 창작 활동을 준비하거나 작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입주작가에게는 완산도서관 3층 '자작자책 공작소'내 집필 전용 공간이 무상 제공된다.

전문작가는 18㎡ 규모의 독립형 집필실인 '자작자책' 1인실을, 예비작가는 공동 창작 공간 '자작일상' 10인실 중 1석을 각각 이용하게 된다.

입주 기간은 오는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3개월 또는 6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월~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금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입주 작가는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월 15일 이상 집필실을 이용해야 하며, 매월 전주시 소재로 한 '글세'를 제출해야 한다.

완산도서관 도서 월 5권 이상 대출, 작가 추천도서 전시, 재능기부 프로그램 1회 이상 참여 등 시민과 문화으로 연결되는 활동에 함께하게 된다.

#### 전주문화재단 동문창작소 입주작가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동문창작소가 지난 2024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1기 입주 작가들의 창작 성과를 선보이는 결과 보고 전시 'LIFE展'을 개최했다.

전시는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1실에서 진행했으며, 1기 입주 작가 9인(구경아, 김효정, 박성수, 엄수현, 이가림, 이미영A, 이미영B, 이수정, 임희성)의 1년 3개월에 걸친 결실을 관람객들과 나누는 것이다.

'LIFE展'은 바람, 나무, 호기심, 침묵, 피어나듯이, 산책, 우리 모두, 행복, 삶'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각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적 해석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와 함께 동문거리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다.

지역 상점에서는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살인샵'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더불어 전시기간 중에는 공유화음실(동문길 60)에서 동문그림가게도 열렸다. 동문그림가게는 전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민 예술가들에게 작품 전시, 홍보, 판매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작가 9인의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으며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LIFE展'을 통해 동문창작소의 첫 입주 작가들의 창작 여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한편 동문창작소(동문길4 3~4층)는 2023년 예술창작공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